

# 여행은 한 인간의 운명과 세상을 바꾸는 원천

## 경험 수집가의 여행

앤드루 솔로몬 지음·김명남 옮김

“하지만 이제는 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여행이든 그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이든, 그저 출발 자체가 나를 슬프게 만든다는 것을. 여행은 삶을 더 강렬하게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죽음을 환기시킨다. 내가 이룩할 때 초조해지는 것은 기압 탓도, 비행기가 추락할까 걱정되어서도 아니다. 나 자신이 꼭 녹아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본문중에서)



희망을 품고 있다”고 평한다.

자칭 ‘경험 수집가’인 저자의 여행은 눈 관망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현지 자료를 나열하거나 형식적인 정보 전달에만도 머물지 않는다. 아마도 저자의 여행에 대한 관점은 이 같은 말로 요약될 것 같다. 즉 “여행은 흐릿해 보이는 지구의 현실에 초점을 뚜렷히 맞춰 주는 교정 렌즈다”라고. 책은 한 인물의 내면적 성장 스토리인 동시에 우리 세계가 변화해온 기록이다. 저자의 유년에는 여행에 관한 두 경험이 상존한다. 루마니아 유대인 이민자 출신의 아버지는 그에게 영원한 안식처는 없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그와 달리 어머니가 가져온 세계 각국 민족 의상이 그려진 클리넥스 통은 그에게 더 넓은 세상을 열고 싶은 열망을 키워 주었다.

저자의 첫 여행지는 20대 중반 방문한 모스크바였다. 이후 50대까지 25년간 7대륙을 누볐는데 캄보디아에서 내전 생존자를 만나 극적인 체험을 취제한 일, 꼼짝없이 배에 갇혀 방산만 구경했던 남극 모험, 리비아의 통치자 카다피의 관저로 초대받은 일 등 단순한 여행을 넘은 변화무쌍한 경험이 펼쳐진다.

책의 미덕은 개인의 서사를 떠나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정치, 문화적 변동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점이다. 소련일 때 방문했던 나라는 현재 러시아로 바뀌었고, 90년대에 찾았던 그린란드의 동토 지대는 기후 변화로 농장으로 변했다. 세계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 화가들은 세계 미술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로 성장했다. 그뿐 아니다. 아프리카의 체제의 붕괴



직후 남아공, 군부와 문민정부의 갈라짐에 선 미얀마, 여전히 내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르완다와 캄보디아 등 그가 방문했던 곳은 변화의 물결 위에 새로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책에는 세계 곳곳에서 변화를 겪는 장소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여행의 증언자이자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자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이이다.

“이 책은 내가 아이 때 했던 여행에서 시작하여 내가 아이와 함께한 여행으로 끝맺는다. 모험에 갈망이 싹트던 시절에서 시작하여 충동적인 객기를 삼가게 되는 시절에서 끝맺는다. 내가 불멸할 것 같던 시절에서 시작하여 내 필멸성을 확실히 깨닫는 시절에서 끝맺는다. 나는 자란 것이다.”

〈열린책들·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지구적 불평등=무엇이 불평등을 초래하는가? 불평등의 영향은 어디까지인가? 불평등에 대해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과 관련해 오늘날 ‘지구적 불평등(국가 내 불평등과 이를 초월하는 국가 간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이 책은 주요 이론과 최신 증거를 바탕으로 복잡한 당면 과제를 정밀하게 파고든다. 오늘날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흐름을 인식하며 국가적·세계적 시각으로 고찰함으로써 불평등 패턴과 그 범위, 원인을 설명하면서 불평등 해소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울아카데미·3만6000원〉

▲노회찬, 함께 꾸는 꿈=고(故) 노회찬 의원의 말과 글을 사진과 함께 묶었다. 민주노동당 초선 의원 시절의 ‘판갈이론’부터 KTX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하하는, 직접 전하지 못한 마지막 축전까지 정치인 노회찬의 전 생애를 좇으며 발언과 연설, 출마 선언문 등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의 말과 글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엮었다. 오랜 세월 그의 곁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담아 왔던 사진작가 이상엽과 김흥구 등의 사진이 온기를 더해 준다. 〈후마니타스·1만8000원〉

▲뉴스와 거짓말=우리는 오보라는 일상 속에 살고 있다. 습관으로 형성된 고정관념, 내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착각, 권위에 대한 맹신, 귀차니즘이 오보를 만든다. 때론 권력과 유착 속에서 미필적 고의로 오보를 내는 경우도 있다. 진실을 왜곡하는 사실관계의 나열도 오보의 한 갈래다. 대다수 언론인이 ‘기



레기’로 취급받는 현실에서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오보의 역사’다. 〈인물과사상사·1만5000원〉

▲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여행=10여년 전 가족과 유럽을 방문했던 지인이 유영근 판사는 아이들이 좀 더 지낸 후에 다시 이곳에 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자 저자는 중요한 역사의 현장들을 다시 찾아갔다. 아나운서가 되기를 꿈꾸는 큰딸과 미술가를 지망하는 작은딸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판사 아빠는 다소 무거운 사회과학적 주제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답해 준다. 〈웅진지식하우스·1만2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반쪽 섬=쓰레기로 가득 차게 된 ‘작은 섬’에 대한 이야기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섬은 지구와 많이 닮았다. 지구는 푸른 바다와 숲을 가진 아름다운 행성이지만 점점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 가고 있다. 오늘날 지구에서는 1.7초마다 약 5t 트럭 한 대 분량의 쓰레기가 생기고 있으며, 다가오는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아질 거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소원나무·1만5000원〉

▲내 친구의 좋은 점=장점을 알아봐 주는 것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고양이 랑이와 친구들의 여행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 랑이는 친구들의 장점을 부러워하며 자기 혼자만 장점이 없다며 우울해한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바다로 향해 가는 여행에서 친구들은 랑이의 장점을 발견한다. 〈르네상스·1만2000원〉

▲안녕! 지구인=외계인 푸띠빠루 박사가 지구를 제대로 알기 위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구에 관한 모든 것을 ‘질문’하고, ‘실함’하고, ‘탐함’하는 세상에 하



나뿐인 ‘외계인’이 쓴 지구 탐험서’다. 푸띠빠루 박사의 탐험은 우주 대폭발로 시작된 지구의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후 화산 폭발, 지각 변동 등을 거쳐 현재의 지구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국에는 다가올 지구의 미래 모습까지 예측도 한다. 그동안 몰랐거나 잘못 알았던 지구의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길벗어린이·1만7000원〉

## 세계 여러 글자에 아로새겨진 사람과 자연, 역사와 문화

### 글자 풍경

유지원 지음

‘판결서체’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 한글 소프트웨어에만 지원되는 폰트라고 한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서 비슷하게 생긴 ‘흥’과 ‘흥’의 고유명사 표기가 잘못 기록됐다면 그 판결문은 무효가 된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점 하나, 획 하나에 사람들의 운명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2004년부터 2년 동안 4~5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 ‘판결서체’를 완성했다. 글자 판독에 정확을 기해 정의에 어긋남이 없고, 역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



는 글자 이야기를 풀어내, 책 제목처럼 그대로 ‘글자 풍경’에 빠져들 수 있다.

책은 세계 여러 글자에 아로새겨진 사람과 자연, 역사와 문화 등을 들려주는 글자 인문학이다. 무엇보다 저자가 직접 그 생태를 확인한 후 현지에서 자료를 입수한 글자만을 다룬 책은 현장감 넘치고, 책에

실린 27쪽지의 글은 단순한 글자 이야기를 벗어나 예술, 과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하게 펼쳐진다. 추천사를 쓴 박찬욱 감독은 저자를 ‘과학자의 머리와 디자이너의 손과 시인의 마음을 가진 인문주의자’라 평했는데, 책을 읽다 보면 수긍이 간다.

서울대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후 독일 라이프치히 그래픽서적예술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한 저자는 “글자는 생물과 같아서 기술과 문화, 자연환경의 생태 속에서 피어난다. 문화권과 시대별로 글자들은 고립된 채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명해 왔다”고 말한다.

1부에는 유학했던 독일을 중심으로 유

럽, 한국, 일본, 홍콩, 인도 등 유럽아시아의 글자 풍경 등을 담았으며 2부에서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 한글 및 한국인의 눈과 마음에 담긴 글자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3부는 인공 지능과 독자 자동차 번호판 위조 방지 글자체 등 자연, 과학과 기술에 반응하는 글자들을 소개했다. 마지막 4부에서는 바흐의 자필 악보와 19세기 북 디자이너 윌리엄 모리스가 디자인한 ‘세상 너머의 숲’ 등을 통해 종이에 남겨진 글자가 주는 사색의 공간으로 안내한다.

저자는 글자를 만들고 배열하는 인간 활동인 타이포그래피는 눈으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공동체를 꾸미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책을 읽고 나면 어떤 이질적 익숙했던 글자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낯선 도시를 방문할 때 흥미를 갖고 살펴볼 게 또 하나 늘었다. 〈울음출판사·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